특집

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는 건출설계교육과 건축공학교육의 구분이다. 이 두 분야를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묶어 교육하여 각각의 건축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건축학의 특성에 맞도록, 단일 학부 내에서 건축설계 분야와 건축공학 분야의 교육을 복합적으로 병행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다.

건축학의 교육현황과 개혁방향

김 진 균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서 문

현재 국제적으로 건축에 관한 직능과 교육 문제에 대하여 매우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WTO 체제의 출범 이후 건축산업의 상호개방이 기정 사실을 넘어 일종의 강제규정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축사 면허나 건축 엔지니어(기술사)의 국가간 상호 인정 문제가 첨예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아울러 각 나라 건축교육의 질적, 양적 수준을 가늠하여 국가간 건축교육의 상호인증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 가도 UIA(국제건축가연맹) 등의 국제적 기관에서 그 기준을 마련하느라 회원국간의 긴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반면 우리 건축교육계는 자발적인 의사라기보다는 외부의 강요에 의한 학부제 실시에 따른 전공이수학점의 축소 등 오히려 국제적 건축교육 수준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맥락 속에서 현 국내 건축교육의 현황과 개혁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논하고자 한다.

현황 및 문제점

국내 각 건축(공)학과 교육의 기본 목표는 거의 예외 없이 건축가와 건축기술자의 양성에 두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목표는 우리가 근대 초기에 영향을 받았던 일본의 관련학과와 유사한 편제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종합학문으로서의 건축교육의 방대성과 전문성으로 인하여,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세계 대부분의 나라(미국, 유럽, 중남미, 중국, 동남아)에서는 오래 전부터 건축사(여기서 건축사라 함은 건축설계 면허를 가지고 실무에 종사하는 건축가를 의미한다)를 양성하기 위한 설계 위주의 교육은 5년제 혹은 6년제(4년의 학부과정 + 최소 2년의 전문학위 대학원과정)의 건축대학에서 시행하고, 건축공학 관련 분야의 교육은 관련학과에 이관하거나 대학원 등 상위 수준의 학문영역에서 다루는 등 2원화 된 교육체제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정된 교육기간 내에 건축설계과 건축공학 각기 분야에서 전문화된 교육을 행할 수 있고 각 분야의 실무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이러한 교육체제의 기본 전제이다.

이에 비해 우리 나라의 건축교육은 위에 언급했듯이 건축학과 건축공학 교육이 하나의 교육 프로그램 안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더군다나 4년제 대학교육에 130학점 내지는 140학점의 테두리 안에서 이 두가지 분야의 교육이 행해지고 있어 누가 보아도 소위 "두 마리의 토끼를 쫓는" 식의 교육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현재 교육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학부과정의 통합화 정책으로 말미암아 건축(공)학과는 토목공학이나 그 밖의 유사분야, 심지어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학문분야와 학부제로 묶여가는 실정이어서 전문화된 건축교육(설계나 공학의 구분을 차치하고라도)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건축가의 양성과 건축기술자의 양성이라는 건축학 교육의 본질을 고려해볼 때, 현행과 같은 4년제의 학과 편제로는 그 어떠한 혁신 방안도 미봉책이 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WTO 체제의 출범(1994년 4월 15일)과 OECD 가입(1996년 10월 11일) 그리고 문학. 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에 가입함(1996년 8월 21일)으로써 우리 나라의 대외 시장 개방은 이제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하였다. 건축관련 분야도 예외는 아니어서, 건설업 시장은 이미(1997년 1월 1일) 개방되었으며, 건축설계업을 포함한 건축관련 제 전문 직능의 개방도 예정되어있다. 이에 따라 국가간의 건축사 면허의 상호 인정 및 건축교육 상호 인증이 당면한 과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나라 건축설계 교육은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의 건축설계 교육과는 달리 전문학위를 수여하고 있지 못하며, 따라서 우리의 건축사 면허가 해외에서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형편이다. 그 주된 이유로는 건축교육 자체가 4년으로 국한되어 있어, 건축사로의 자질교육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서울대 건축학과와 미국의 건축대학의 건축설계 전문학위 교육과정을 비교해 놓은 〈표 1〉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교육혁신의 대내적이고 본질적인 목적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면, 대외적인, 그리고 보다 설득력 있는 목적은 건축직능의 보호라는 급박한 현실에서 비롯한

〈 표 1〉 건축교육과정 학점 비교

학 교		미국 Pratt Institute	미국 UC Berkeley	서울대
수여학위		B. Arch	BS+M. Arch	BE
교육년한		5년	4년+최소 2년	4년
학 부	전공 필수	92	28	30
	전공 선택	22	20	20
	일반 선택	17	72	33
	교양 필수/선택	44	-	47
	전공 필수/선택	-	48	-
전공학점 합계		114	120	50
이수학점 합계		175	168	130

다. 우리의 건축 교육제도가 외국의 인증을 받지 못할 때 우리의 건설 시장을 외국인의 독무대로 만들어버릴 위험마저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교육 제도가 한시 바삐 외국의 교육인증을 얻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야하며, 이와 같은 차원에서 전문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5년제 또는 4+2년제 건축학부의 설치가 유일한 대안일 수밖에 없다.

한편으로는 우리의 건축공학 교육도 문제가 되기는 마찬가지이다. 건축가 교육과 건축공학 기술자 교육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미래 공학분야에 진출하려는 학생들에게도 건축설계 교육이 상당량 이루어지고 있어 한정된 이수학점 내에서 공학교육이 미흡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다행히 현재 ABEEK(한국공학교육인증위원회)에서 건축공학교육을 포함한 모든 공학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한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우리 건축공학계에서도 이에 맞춘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 새로이 개발될 이 기준에 맞는 건축공학교육 프로그램이 개발이 된다면 국제적으로도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건축교육의 개혁방향

이제껏 논의한 바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조건적인 서구 건축교육제도의 답습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을 조심스레 고려하며 우리에게 적합하되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교육제도를 새로이 만들어 내어야 할 것이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는 건축설계교육과 건축공학교육의 구분이다. 위에서 반복하여 강조한 바와 같이 이 두 분야를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묶어 교육하여 각각의 건축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두 프로그램이 각기 다른 교육단위(예를 들어 건축학과와 건축공학과의 분리 등)에서 수행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식의 2원화 된 체제가 반드시 장점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공학을 모르는 절름발이 건축가나, 반대로 건축설계를 전혀 모르는 절름발이 기술자를 양성하게 되는 위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축학의 특성에 맞도록, 단일 학부 내에서 건축설계 분야와 건축공학 분야의 교육을 복합적으로 병행하는 것이 보다 이상적으로 생각된다.

이미 2원화 체제가 자리잡은 서구의 일부 학자들에게서도 한국과 일본이 가지고 있는 체제에 대한 장점을 조심스레 이야기하는 분위기도 생겨나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단위로서 건축학부를 신설하고 이 안에서 건축설계교육과 건축공학교육 프로그램을 구분하여 유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건축설계교육의 경우는 5년의 학부과정 이수 후 설계전문학위인 B. Arch를 수여하거나, 학부 4년에 BS 또는 BE를 수여하고 이어서 대학원 과정 2년을 통하여 전문학위인 M. Arch를 수여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으며, 또한 학교에 따라서는 학부과정 없이 3년간의 건축전문대학원을 신설하여 학부에서 건축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을 교육한 후 M. Arch 학위를 수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건축공학 교육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ABEEK의 인증기준에 따라 검토해 보면 현행대로 4년제 교육으로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단, 현재와 같이 건축설계교육과 병행해서는 아니되며 저학년부터 고학년에 이르기까지 건축공학 관련 과목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은 개혁방안이 필요하다.

1. 건축과 관련이 없는 타학문분야와의 학부제 추진은 지양되어야 한다. 오히려 건축학(건축설계교육)과 건축공학(건축공학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건축학부가 신설되어야 한다.
2. 건축학교육은 학교 및 그 학교가 포함된 지역의 제반 조건을 고려하여 5년제(B. Arch), 4+2년제(M. Arch), 또는 3년제 건축전문대학원(M. Arch)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이때 건축전문대학원 과정은 학부에서 건축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3. 건축공학교육은 현행대로 4년제(BE)가 바람직하며, 좀 더 수준 높은 교육은 대학원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ME).

결 언

이상과 같이 국내 건축학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또 개혁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물론 이러한 개혁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으며, 학계는 물론 건축산업계의 참여하에 신중한 토론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여기에서는 주로 교육체제에 대해서만 언급했으나, 그 밖에도 교과목의 다양화 및 전문화, 교육자원(교원 및 시설)의 확충 등의 문제도 존재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건축설계교육에 대한 국내외 인증제도의 도입 등의 이슈도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을 밝히며 이 글을 맺기로 한다.